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3.1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차기 호라이즌 유럽 거버넌스 공백에 대한 불만 고조(3.10)

- 유럽의회는 FP10 및 ECF 운영 방식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준비 중이며, 헤이터 보고서에서 권고된 위원회* 구조를 FP10 법안 초안에 포함할 예정임을 밝힘
- * 두 개의 독립 과학위원회(산업 경쟁력·기술 위원회, 사회적 과제 위원회)
- 엘러 의원은 “위원회가 설립되면 필라2의 연구 과제는 혁신 성과를 입증한 연구 공동체·산업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될 것”이라고 언급
- 또한 집행위는 주제별 정책창구를 통해 ECF와 필라2 보조금을 연계할 계획을 설명. 그러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성 부족,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하향식 통제 가능성,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
○ 집행위, 팔레스타인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 지원(3.5)

- 중동 사태 속 집행위가 팔레스타인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및 향후 EU 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을 강화 중. 목표는 장기적으로 감소한 참여를 회복하고 가자 전쟁 이후 연구 역량 재건을 지원하는 것
- ※ 팔레스타인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수준은 FP5-FP7(1998-2013) 당시 20개 이상에서 호라이즌 2020에서 9개, 호라이즌 유럽 4개로 감소
- 이를 위해 2026년 2월 팔레스타인 교육부와 함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, 추가로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책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

○ 집행위, 통신·엣지컴퓨팅·클라우드 통합 EURO-3C 프로젝트 발표(3.3)

- 집행위는 7,500만 유로 규모의 EURO-3C 프로젝트를 발표. 이는 유럽 최초의 대규모 ‘텔코-엣지-클라우드(Telco-Edge-Cloud)’ 연합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주권 강화 및 고속·보안 컴퓨팅 기능 제공을 목표
- IPCEI-CIS(클라우드·엣지컴퓨팅 분야 유럽공동이익사업), SNS JU(스마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동사업), EuroHPC(초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)등의 활동과도 연계되어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

○ (기타) ▲“6G는 진화가 아닌 혁명”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는 Qualcomm 주장(3.4) ▲EU 자금을 활용해 선도적인 지열 프로젝트 구축(3.10) ▲EU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(3.9)